

변하는 사회, 변할 사회 - 「신사고」가 필요하다

鄭 範 九*

「전환기」를 말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전환기」를 말하고 있다. 80년대 후반 이래 우리가 겪고 있는 변화가 엄청나고, 그리고 곧 다가올 21세기의 모습이 궁금하여 사람들은 혹은 불안해 하고, 혹은 막연한 기대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동시대인의 눈에는 오늘의 현실이 역사에 어떤 획을 긋고 있는지 분명치 않지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빠르게, 눈 앞에 무엇인가가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급속한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사실이다.

당장 그 동안 겪었던 변화만 해도 대단한 것이었다. 분단국가였던 동서독이 통일을 이뤄 거대독일이 탄생하고 미국과 더불어 세계를 양분해 온 소련이 급격히 무너져 내린 사건만 보더라도 우리는 20세기 역사에 기록될 가장 큰 변화중 두가지를 직접 목격한 셈이다. 국내적으로도 꾸준한 민주화운동의 성과로 문민정부가 탄생하여 과거청산 작업과 함께 대대적인 사회개혁 작업을 시도하고 있다.

이 와중에서 어제까지 힘을 갖던 것들이 오늘은 갑자기 초라해 지고, 어제까지 어둠에 묻혀 있던 것들이 오늘은 빛을 발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다. 전혀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지 않던 통일 문제도 이제는 공상의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현 방법을 논의하는 수준에 와 있다. 한국의 21세기는 어떻게든 통일 한국이란 밑그림을 바탕으로 그려지게 될 것이다.

「전환기」에는 「어제」의 논리보다 「내일」의 논리와 사고가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그러나 사람들이 지금까지 익숙해 있던 「어제」의 논리, 고정적 관념, 평면적 사고를 깨는 것이 그리 간단한 것은 아니다. 코페르니쿠스 시대에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는 이야기(地動說)는 마치 천지가 개벽할 만한 불온한 이야기였다.

중세인들은 지구가 평면으로 되어 있다고 믿었다. 중세기에 만들어진 세계 지도를 보면 지구의 끝은 낭떠러지로 되어 있어 그 끝에까지 가면 추락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이런 시대에 배를 타고 멀리 나가 신세계를 찾아 본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해 볼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지구를 한바퀴 돌아 신대륙을 발견하고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실제로 입증해 보인 콜럼부스는 고정적 사고의 틀을 깬 대표적인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1세기, 아니 10년전 까지도 불가능하다고 믿거나, 또는 아예 생각해 볼 수조차 없었던

* 연구위원, 독일 마부르크 대학 정치학 박사, 비교정치·유럽 정치 전공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으며 일상화되기도 한다. 소연방이 해체되고 동유럽 사회주의가 흔적도 없이 붕괴될 것이라고 누가 10년은 고사하고 3-4년 전에 생각할 수 있었을까? 1950년대 궁핍하고 고루한 서울의 거리를 누군가가 오늘날 유행하는 미니스커트(소위 똥꼬치마)나 핫팬츠를 입고 거닐었다면 그녀는 즉시 정신병자 수용소에 감금되거나 하였을 것이다. 70년대의 어른들은 젊은 처녀들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니는 것을 보고 “세상이 망할 정조”라고 개탄하였겠지만 세상은 여전히 망하지 않고 잘 굴러가고 있다.

직업의 변화로 사회 변화를 더듬어 보는 것도 재미있는 일일 것이다.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직업이 오늘날은 인기 직업이 되어 있는가 하면, 지금 어린아이들에게는 아무리 설명해 줘도 잘 이해할 수 없는 직업들이 몇십년 전에는 있었던 것이다. 60년대 초반까지도 대부분의 한국인에게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라는게 뭘 하는 직업인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종류의 직업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최고 유망직종의 하나가 되어 있다. 장대 끝에 첩보 바가지를 매어 골목마다 돌아 다니며 거름 뿌라고 외치고 다니던 직업은 동네에 따라 70년대 까지도 익히 볼 수 있는 풍경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아파트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이런 직업이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옛날 이야기”에 이르면 더 할 말이 없어진다. 「나뭇꾼과 선녀 이야기」가 여전히 한국의 주요 전래 동화로 남아는 있지만, 요즘 아이들이 도대체 그 부모, 또는 할아버지 세대가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는 「나뭇꾼」의 모습을 어떻게 사실적으로 상상해 낼 수 있을까?

사회 변화에 따라 직업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신분에 대한 인식도 달라진다. 양반과 상놈의 구별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 8.15 해방, 또는 6.25 이전까지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쉽게 뛰어 넘을 수 없는 장벽이었다. 특히 백정과 같은 천민층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일반인의 상상을 뛰어 넘을 정도로 심한 것이었다. 한국판 백정 해방 운동이라 할 수 있는 「형평사」 운동의 진원지인 진주에서는 불과 5-60년 전 까지 백정 자식들의 학교 취학을 시민들이 앞장서서 반대하였다. 식민지 치하이지만 의무 교육이 시행되던 시절이었음에도 말이다. 백정의 자식은 다른 백정의 자식과만 혼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동네 정육점의 주인 아저씨는 백정이 아니라 사장님이다. 지역에서 신망이 높으면 지역 의회에 출마하거나 그외 지역 유지 역할도 할 것이다.

이야기가 다소 장황해 졌지만 이같이 오늘에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 전혀 의심의 대상이 되지 않던 것들이 세월이 가고 나면 아무 현실감을 주지 못하는 한낱 “옛날 이야기”로만 남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세상의 모든 사물과 인심은 변한다. 그 변화를 능동적으로 받아 들이고 「내일」의 논리를 빨리 받아 들이는 개인이나 집단은 살아 남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낙오의 쓴 잔을 들 수 밖에 없다. 19세기까지 거의 비슷한 수준에 있었던 한국과 일본이 오늘날 수십 년의 거리가 있는 발전 정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들의 선택이 각각 달랐기 때문이다. 일본은 서세동점(西勢東漸)의 당시 대세(人勢) 속에서 명치유신이라는 선택을 했지만 우리는 대원군의 오랜 쇄국정책과 그에 이은 수구파의 원칙 없는 대외정책으로 국권 상실의 길을 걷게 되었다. 19세기의 변화기 속에서 이와 같은 서로 다른 적응방식이 오늘 두나라의 현실을 가져 오게 한 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市場)도 변하고 있다. 당연히 기업도 변화하여야 할 것이다.

신세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요즘 많은 사람들이 「신세대」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들은 소비시장의 무시할 수 없는 집단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생산조직의 다리, 또는 허리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신세대」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가에 대해서는 「신세대」들 자체도 서로 의견이 다르다. 예를 들어 85학번의 사람은 자신들에 비해 86학번 이후가 신세대적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87학번은 자신들이 “요즘 아이들”에 비해 아직도 보수적인 구세대에 속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논의를 보다 단축하기 위하여 일단은 70년대를 전후하여 출생한 20대를 중심으로 신세대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하자. 1992년 현재 20-29세 연령층 인구는 약 860여만명으로 총인구의 19.7%를 차지하고 있다. 단위 세대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연령층이다. 동일한 시대적 환경에서 비슷한 의식과 행동양식을 갖춘 20

대가 전체인구 5명중 1명이라는 사실은 그들이 곧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87년의 민주화투쟁 당시 사회 초년병 또는 대학생이란 신분에서 보여 주었던 20대의 파워는 이미 입증되었으며, 선거에서는 이들 20대의 표가 정권의 향방을 가름할 수 있는 관건이 되고 있다. 소비시장은 이들의 변화하는 소비패턴에 맞게 재구성되고 있으며(요즘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편의점이라든가 커피 전문점등은 이들 신세대의 취향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이들이 근무하는 작업현장에서는 새로운 인력관리 요령이 필요해 진다. 사무 관리직이라면 이들 연령층은 대부분 아직 사원이나 대리급으로 관리조직의 밑부분에서 “몸으로 때워야” 할 일의 비중도 많은 계층이다. 생산직이라면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몇 년의 현장경력이 있는 나이들이다. 이들이 능동적으로 조직의 일원이 되어 자신의 가진 역량을 십분 발휘, 생산성 향상에 일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변화한 이들 세대의 습성과 문화, 기질을 잘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다소 과장하여 말한다면 앞으로는 젊은 세대의 신사고를 받아 들이는 기업만이 2천년대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60년대 중반 또는 후반 이후 출생한 신세대는 우선 「보리고개」등 가난을 피부로 느꼈던 기성세대와는 달리 궁핍을 별로 경험해 보지 못했다. 「배고픔」의 문제보다는 「다이어트」 문제가 더 심각한 세대라고도 할 수 있다. 이들은 자신의 이해에 관계가 없는 한 타인의 행동에 대해 무관심하며 즐거운 일을 마음껏

한다. 따라서 집단을 개인보다 우선시하는 집단주의적 가치관보다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종래와 같은 획일적인 사회목표를 자기목표로 하지 않고 자신만의 목표를 위해 행동한다.

이들은 활자보다는 영상매체를 선호한다. 어려서부터 TV문화 속에서 성장한 이들에게는 책 보다는 텔레비전이나 영화등 영상매체가 더욱 익숙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은 이들이 기성세대에 비해 논리적이고 추상적인 사고능력이 떨어지는 것 처럼 보이게 한다. 끈질기게 노력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며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스스로 해결하기 보다 남에게 의존하려는 속성을 보이기도 한다. 이들은 또한 「인스턴트 세대」로 지칭될 수 있다. 이들은 햄버거 등 인스턴트 음식을 먹고 자란 세대로서 행동이나 사고도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오래 기다리는 것을 참지 못하고 한가지에 집착하기 보다는 새로운 것을 계속 추구한다. 시험을 보더라도 논술식 보다는 단답식을 좋아하며 복권도 1주일이 걸리는 주택복권 보다는 즉시 당첨을 확인할 수 있는 즉석복권을 좋아한다.

이들은 또한 「兩者擇一」이라든가 「背水陣을 치는」 것과 같은 비장한 선택방법보다는 두세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는데 더 익숙하다. 라디오나 TV를 켜 놓고 공부하는 자녀세대를 이해 못하는 부모는 분명 구세대에 속한다. "...하면서 族(이는 일본어의 ...なから族를 직역한 것이다)"이라는 것이 우리 신세대를 표현하는 용어로 등장하고도 있다. 이들은 사랑도 김중

배와 이수일 사이에서 고민하는 심순애나, 그녀의 배신에 몸을 떠는 이수일 식의 「전신투구」형이기 보다는 이수일의 아카데미한 분위기와 김중배의 여유있는 경제력을 모두 사랑하고 싶어한다.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하나를 버려야 한다고 믿어 온 구세대의 사고는 너무 경직되어 있으며 자못 悲壯하기까지 하다. 왜 두가지, 또는 세가지를 동시에 추구해서는 안된다는 것인가? 신세대의 항변이다.

이들에게 4-50대 상사들의 「까라면 깬다」는 식의 무조건적 집단귀속주의는 좀 웃기는 이야기가 된다. 어느 그룹에서 조사한 「바람직한 상사」의 조건 중 상위를 차지하는 항목들이 「실력 있는 상사」, 「부하직원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상사」, 「합리적인 상사」라는 것은 충분히 귀담아 들을 만한 항목이다. 4-50대의 「수출역군」들이 회사의 발전을 위해 가정생활을 희생해 온 이야기들은 더 이상 「미담」이 아닐 뿐 아니라 회사생활과 가정생활이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곤란한 이야기가 된다. 퇴근시간이 지나서 까지 자리를 지키고 앉아 부하직원들에게 눈치를 주는 상사는 어쨌든 조금은 불편하다.

그렇다고 너무 개인주의적이고 회사일은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받는 만큼만」 적당히 하려고 하는 신세대는 곤란하지 않은가? 어쨌든 몇십년 그 방면에서 잔뼈가 굵어 온 상사의 소중한 경험과 의견을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신세대에게 어떻게 회사와 국가의 장래를 맡길 수 있을 것인가? 힘든 일은 하지 않으려 하며 윗사람을 별로 공경하지도 않는 것 같은 버르장머리 없는 이 아이들

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 민주적으로 하자고 하면서 막상 자신이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요런 저런 이유를 대면서 회피하거나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이 아이들의 기를 마냥 키워만 줄 수도 없는 일이 아닌가? 라면 먹고 온갖 시집살이를 감수하며 오늘 이 자리까지 온 4-50대들의 항변이다.

그러나 누누히 이야기한 바와 같이 세상은 어떤 식으로든 변하고 있다. 신세대들의 삶의 모습은 바로 변화하는 우리 사회의 반영이다. 구세대는 이제 단순히 신세대의 “버르장머리”를 고치려고 안달하며 힘을 빼기 보다는 신세대의 기를 살려 주어 그들 식으로 한번 문제에 접근하고 풀어 보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이 세상문제를 풀어 가는데 있어서 어차피 이제는 주산이나 암산으로는 게임이 안된다. 386이나 486 컴퓨터를 장난감 다루듯 능숙하게 다루며 덩치 큰 서양아들 앞에서 주눅 들 필요 없이 이제 싸이즈에서도 국제화한 이들 신세대가 결국 내일을 책임져 나가도록 키워 줘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마지막 한가지! 여기서 구세대는 그럼 효용을 상실하고 폐기처분되어야 하는가? 아니다. 이들은 집안, 즉 조직의 형님이나 어른으로서 그 조직의 틀을 유지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다. 신세대의 기를 꺾지 않으면서 공동체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변화하는 시대에 여성의 역할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

여성의 역할 역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 사회 생산조직의 주요한 구성부분일 뿐 아니라 소비시장의 주역이다. 섬유, 봉제업을 주축으로 한 우리나라 6-70년대 수출입국의 신화는 이들의 땀으로 일구어 낸 것이다. 휴일도 없이 잔업과 특근 속에 공업화의 기틀을 다진 「산업역군」과 「수출전사」들의 아내로서 궁핍한 시대에 묵묵히 가정을 지켜 오고 자녀 교육을 담당해 왔던 것 또한 이들이었다. 이들은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내려왔던 「남존여비」의 뿌리 깊은 차별구조 속에서도 이 땅의 얼을 지키고 자존심을 지켜왔다. 굳이 논개의 정절과 신사임당의 어머니상, 유관순의 의기를 말하지 않더라도 이 땅의 여인들은 억세고 굳굳하게 살아왔다. 短身과 체력의 열세를 극복하고 우리娘子軍들은 세계탁구를 제패하고, 핸드볼의 정상을 지켰으며 양궁에서도 세계를 압도하고 있다. 88올림픽 핸드볼 결승전을 지켜 본 사람들이라면 아마 한번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으리라. 필자는 당시 독일에서 이 광경을 지켜 보고 있었는데 탱크 같은 소련 선수들을 상대로 가냘픈 우리의 딸들이 분투하는 장면은 시종 감격의 눈물 없이는 보기 힘든 것들이었다. 같은 경기에서 우리 남자팀은 결승에서 패배하고 준우승엔가 머물렀던 기억이 난다. 예전부터도 그랬다. 한국여자농구나 배구는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 나가서라도 꼭 우승을 하고 오는데 남자팀은 그러지 못했다.

우리 여성들의 이러한 능력과 불굴의 투지는 어디에서 오는가? 역설적이지만 그것은 아마 오래된 차별과 억압에서 오는 것 같다. 어려서 부터 우리의 딸들은 “찬밥”에 익숙해 있

었다. 누나의 밥은 누룽지나 찬밥이지만 동생이라도 아들들은 반드시 아랫목에 묻어 둔 더운 밥을 먹이려 했다. 같은 여성인 어머니가 바로 이런 딸-아들의 차별구조에 더욱 익숙해 있었다. 동생을 대학 공부 시키기 위해서 누나가 「공순이」 생활을 거쳐 몸을 파는 직업으로 나아가야 했던 것은 70년대 까지 소설과 영화의 흔한 주제였다. 이런 속에서 남성들은 「웅석받이」가 되어 가고 근거없는 남성우월주의의 신화에 빠져 갔다. 여성은 사회적으로 남성보다 열등하다던가 승부근성이 부족하고 사회성이 떨어진다는가 하는 고정관념을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많은 남성들이 갖고 있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이는 반드시 구세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학생층의 젊은이들도 아직 이런 고정관념으로 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남자가 하는 일”은 여성으로서는 범접할 수 없는 영역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가 하는 고정관념도 여전히 강하다. 영업부서에 근무하는 남자들은 자신들의 일에 여성들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아직도 접대가 영업에서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술자리에 어울리기 불편한 여자동료는 좀 힘들다. 더구나 기혼여성이 이런 파트에서 일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 그러나 동료로서의 여성을 말할 때 자주 인용되는 이런 사례에도 함정은 있다. 그 여성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을 담당하게 된다면 이런 일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영업 부서가 적성에 맞는 여성이라면 실무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부딪히는 문제를 나름대로 극복하는 슬기를 터득하게 될 것이기 때문

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승부근성이다. 많은 남성들은 여성들이 경쟁에서 남자보다 쉽게 포기하며 의존적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여성에게 고유한 어떤 본능적인 것이라기 보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만들어 낸 것이다. 여성은 이미 취업기회에서 부터 차별되고, 직장 내에서도 제도적으로 남성 동료에 비해 불리한 처우를 받는다. 이미 어릴 때 부터 차별에 익숙해 온 여성들이 일반적으로 체념이나 포기해 익숙해 지는 것은 이 사회가 만들어 내고 조장해 낸 일이다. 필자가 대학에서 강의하며 느끼는 일 중의 하나는 여학생들의 성적이 일반적으로 남학생보다 좋다는 것이다. 수업태도도 남학생보다 성실하다. 그러나 일반 취업경쟁에서는 남학생보다 성적이 좋다고 해서 여학생들이 선발되기는 힘들다. 각종의 교묘한 절차를 통해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게 밀리게 된다.

오늘날 전반적인 고등교육 추세에 따라 대학졸업자가 늘어나고 이들 중 상당수는 여성 인력이다. 이들에 대해 사회가 투자한 교육비용은 엄청나다. 고작 여성들을 가정 속에 쳐박아 두기 위해 이렇게 엄청난 비용을 들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남편 뒷바라지와 현명한 육아를 위해 여성들이 반드시 경영학이나 경제학을 공부할 필요는 없다. 대학에서의 다른 어떤 전공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대학교육을 단순히 교양을 쌓는 정도의 단계라고 말한다면 할 말이 없겠지만 우리 현실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여 한가하게 교양교육이나 시키고 앉아 있을 수는 없다. 여성인력의 과

감한 채용과 적재적소에의 등용! 이것이 이제 21세기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면서 후기산업사회의 인력구조를 보여가고 있는 우리 현실에 적응해 나가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

결재란의 칸을 줄이자

「경쟁력 강화」를 자주 이야기 하면서도 아직도 전근대적이고 비합리적인 요소가 우리사회의 구석구석에 남아있다. 국가적으로는 여전히 「민방위 비상소집」이다 뭐다 해서 전사회적으로 「시간뺏어먹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형편이지만 합리성, 효율성을 최고의 행동규준으로 하여야 할 기업에서도 구태의연한 사고들이 많이 남아있다. 여러가지 사례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우리의 결재제도를 한번 도마위에 올려 보고자 한다.

우리사회의 결재시스템은 일선 담당자부터 계-과-부-(본부)-사장의, 라인조직의 모든 관련자가 도장을 찍는 시스템이다. 이는 책임의 분담 내지는 책임의 공유라는 원칙에 따른 것일 것이다. 그러나 실제 운용에 있어서 이런 결재 시스템은 무책임의 공유, 책임의 회피가 되기 쉽다. 문제가 생겼을 때 담당자는 상위 결재권자인 대리에게, 대리는 자신의 서류에 도장을 찍었던 과장에게, 과장은 또 도장 찍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부장에게, 부장 역시 자기 위의 결재권자에게 책임을 밀게 된다. 모두 책임의 한 부분은 있을지 모르지만 전적인 책임은 질 수가 없다. 고급간부의 경우 이런 결재시스템을 통해 관할 부서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을 파악할 수가 있다고 하겠지

만 위로 올라 갈수록 커버해야 하는 업무영역이 넓어 지는데, 어느 부분까지 본인이 관장하면서 사업지도를 잘 해낼 수 있는가 하는 점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책임과 권한의 하부로의 과감한 이양. 실무자 중심주의의 확립. 이런 것들은 이미 선진산업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경영형태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물론 많은 선행작업들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담당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훈련이라든가 직무분담에 대한 전면적 재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고 승진제도와 보수규정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우리가 현재 택하고 있는 바와 같이 모든 직급의 직원에 대해 단일호봉제(연공급)를 택할 것인가, 과감하게 능력급 중심으로 보수체계를 재조정할 것인가 등의 문제도 검토해 볼만한 단계에 왔다고 판단된다. 오늘 통용되는 것이 유일하게 올바른 것이라는 사고를 버리는 훈련도 할 겸...

글을 맺으며

무교회운동의 지도자였던 고 함석헌 옹은 평소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살아 남는다는 뜻 - 필자)”는 말을 자주 하였다. 이말은 평범하고 상식적인 말이지만 늘 되씹어 볼 만한 말이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그 변화의 방향을 쉽게 가늠해 보기 힘든 시대에는 더욱 그렇다. 함옹의 말은 이렇게 바뀌어서 이야기해도 좋을 것이다. “생각하는 기업이라야 산다.” “생각하는 민족이라야 산다”고... ♣